

특별기획

광복절 특별사면164명 어업인 구제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라 해기사 행정 처분을 받은 어업인들이 구제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은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에 따라 생계형 법령 위반에 따른 해기사 행정처분을 받은 영세 어업인들에 대한 사면 혜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택 대상자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해기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면허정지는 종료되고 면허취소 된 자는 재취득 결정기간의 효력이 종료돼 즉시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행정처분 기록은 완전 삭제된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해기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25명이 구제를 받게 되고, 139명이 처분기록 삭제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22일부터 사회조사 실시

군산시가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1,000가구 중 만5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원이 대상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복지 분야 등 42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얻어지는 해당가구의 기본자료는 비밀이 유지되는 만큼 해당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시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정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토론회

18일 익산시 송리예술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익산시, 익산경찰서에서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익산시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서 국회의원, 김정수 익산시의회 부의장 김성중 익산경찰서장 등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공무원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5시간에 걸쳐 주제로 익산시 교통사고 현황 및 예방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익산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며, 교통안전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 아동학대 근절 활동 전개

367개소 아동보육시설 서한문 발송·어린이집 등 25개소 현장방문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는 81%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관계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부모나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체벌의 기준을 알지 못해 학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영·유아 보육수당 미신청자 15,000여명과 초·중·고교 장기결석·미취학 학생 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관내 367개소 아동보육시설에 경찰서장 명의로 서한문을 2회 발송하고 아동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 등 약 25개소를 방문 찾아가는 아동학대 근절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학교밖 아이들을 상대로 지역아동센터 25개소를 방문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등 찾아가는 아동학대 근절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근절 활동이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활동을 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보육교직원 1,600명이 교육받는 장소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 하고 SNS, 지역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관내 시내버스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입니다"라는 스티커를 시내버스 외벽에 붙여 군산 모든 지역에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입니다"라는 스티커를 관내 시내버스 외벽에 붙여 군산 모든 지역에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지역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활동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관내 시내버스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입니다"라는 스티커를 시내버스 외벽에 붙여 군산 모든 지역에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아동학대를 근절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 증원 하는 등 각 가정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여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김형길 전주지검군산지청장 초청 군산해경 특별강의 열려

본격적인 중국어선 활동시기를 앞두고 군산해경에 의미 있는 강의가 열렸다.

18일 군산해경서는 "소속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선박 몰수'라는 주제로 김형길 전주지법검찰청 군산지청장을 초청해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가 사회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8월 1일부터 조업허가 된 유망 어선의 조업이 재개됐고 10월 16일부터 그 외 어선들도 조업이 예고됨에 따라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신호탄이 울려졌다.

이번 강의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관련된 판례들을 되짚어

보며 단속현장에서의 해양경찰의 역할과 검찰에서의 노력 등이 심도 있게 다뤄져 향후 해경의 단속 활동에도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의에 나선 김 지청장은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지키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선박을 몰수하는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 8월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선박몰수 된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조업 선박을 나포한 경우 전국적인 DB를 구축·관리해 재범 이용을 막고 몰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호원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31개 학부·과 113명 학생 후학기·조기 학사 학위 취득

호원대학교가 18일 오전 11시 교내 5층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부모를 포함한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개 학부·과 113명의 학생이 후학기 및 조기 학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경영학사 10명, 경찰학사 15명, 관광학사 7명, 교육학사 3명, 문학사 2명, 미술예술학사 7명, 법학사 2명, 사회복지학사 3명, 소방행정학사 2명, 예술학사 32명, 응용구조학사 1명, 이학사 14명, 작업치료학사 2명, 체육학사 10명, 행정학사 2명 등이다.

또한 학위수여식에는 김다현(사이버사경철학부, 13학번)학생 외 4명이 조기 졸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중국 산동성 출신인 왕정환(경영학부, 13학번)학생 외 6명의 외국인 학생도 함께 학위를 받았다.



늦깎이 졸업생 김기덕(건축학부, 99학번)학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학업을 마치게 되었다"며 "늦었지만 학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학창시절에 쏟은 열정은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값진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농기센터, 도시 농업 교실 운영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비자단체, 시민모임 등을 대상으로 도시 농업 교실을 운영한다.

도시농업을 매개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민 정서순환 및 치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진행되는 도시농업교실은 18일(목) 1차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시농업교실은 양안면 행복한 보은의 집 소비자연구모임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수강생들이 찾

아오는 교실이 아닌 찾아가는 교실로서 관내단체 및 시민모임의 관심은 더욱 뜨거운 전망이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교실이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조선업 위기 극복 위해 세제지원

군산시가 관내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산시는 조선업이 겪고 있는 생산량 감소 및 공장 가동률 하락, 자금난 악화 등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80여 곳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2개 업체 재산세 1억400만원을 징수

유예 했으며, 2개 업체에서 주민세 1600만원 기한연장, 재산세 3억3800만원이 분할납부 처리됐다.

또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연기 및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해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한해 약 63억원에 달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래된 피드백의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싱크대 배수통의 오래된 피드백의 막힘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싱크대 배수통의 오래된 피드백의 막힘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 하고 싶다면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